

주가지수

시장간 주가지수 스프레드

2013. 8. 14

존 W. 라브즈스키

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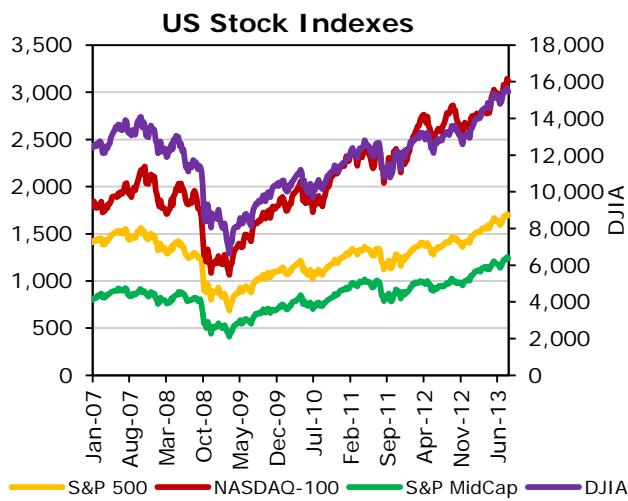
연구&상품개발

312-466-7469

jlab@cmegroup.com

주가지수선물은 특정 국가의 주식시장 또는 특정 주식시장 섹터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는 대체수단을 제공해주는 유용한 거래 수단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이나 다른 섹터를 반영하는 두 주가지수선물간의 시장간 스프레드에 투자하는 것은 그 두 시장의 향후 상대적 수익률 전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효과적이고도 손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미국 주식시장의 첨단기술섹터가 전체 시장보다도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면 그는 S&P 500선물을 매수하고 NASDAQ100선물을 매도함으로써 시장간스프레드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브라질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믿는다면 Ibovespa선물을 매수하고 S&P500선물을 매도하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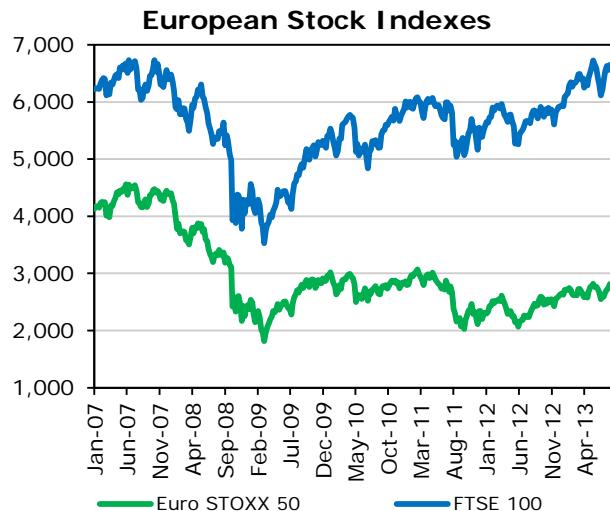
시장참가자들이 손쉽게 미국, 유럽, 아시아 및 남미 시장의 포지션을 사실상 24시간 내내 취할 수 있게 운영되는 오늘날의 현대적 전산매매시스템이 이러한 스프레드 투자를 더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목적은 시장간 주가지수스프레드 투자의 과정과 실무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유럽, 아시아 및 남미 시장에서 가능한 기회에 대해 몇 가지 유용한 전략과 지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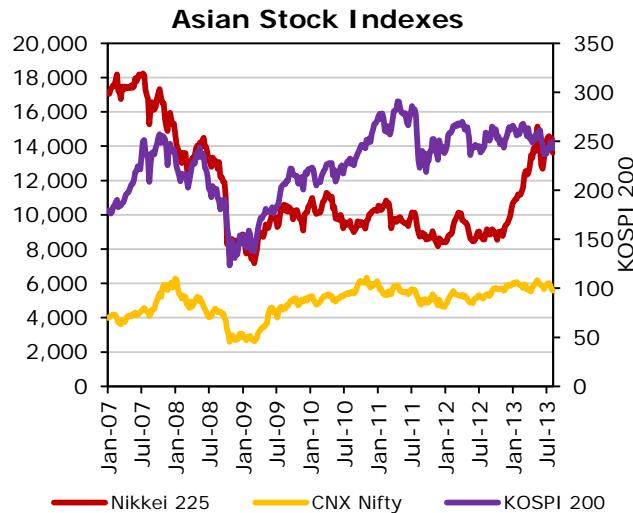
주가지수선물

CME 그룹은 S&P 500, Nasdaq-100, 다우존스 산업평균(DJIA), S&P 중형주 400과 같이 수 많은 미국

거시지표 지수에 대한 유동성이 뛰어난 선물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갖춘 주가지수 선물 상품은 EUREX가 범유럽 Euro STOXX 50선물을 상장하고 NYSE Euronext가 FTSE 100을 상장하는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에 걸쳐 이용 가능합니다.



아시아 주가지수선물 지표상품으로는 오사카증권거래소와 CME에 일본엔화 및 미달러화 표시로 각각 상장된 닛케이225 외에도 인도국립증권거래소(NSE)와 CME에 상장된 CNX Nifty 선물 및 한국거래소(KRX)에서 이용 가능한 KOSPI200선물 및 옵션상품이 있습니다.

남미의 주가지수상품으로는 사용파울로의 BM&F 및 CME에 상장된 Ibovespa와 멕시코시티의 멕시코파생상품거래소(Mexder)에 상장된 IPC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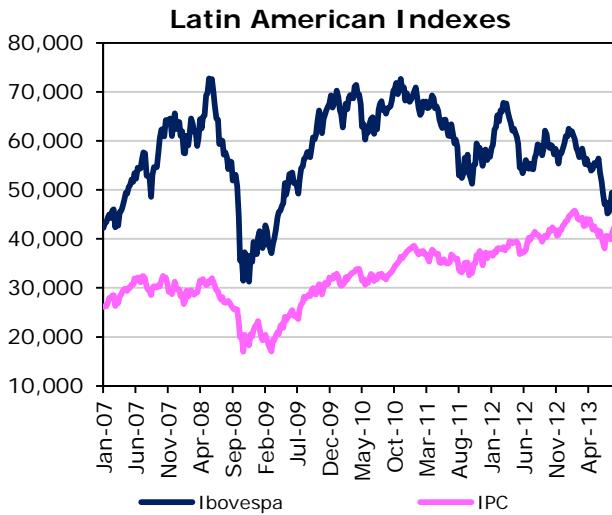


표1에 이러한 선물상품들의 특징에 대해서 요약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계약들이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대록내 또는 대록간 시장간스프레드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스프레드 투자의 이익 잠재력이나 리스크는 스프레드 대상이 되는 두 지수간 상관관계 정도 함수 또는 상관관계 부재 정도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세계의 주요 주가지수들의 움직임간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아래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지수간 상관관계는 매우 높아서 S&P 500 과 DJIA 간 0.981에서 NASDAQ-100 과 S&P 중형주 400 지수간에는 0.895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에서 우리는 DJIA를 구성하는 전통적인 블루칩들과 Nasdaq-100 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첨단기술주는 성격이 서로 다른 반면 S&P500 과 DJIA는 서로 근사치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¹

S&P 500 과 여타 지수와의 상관관계에서 주목하는 점은 바로 E-mini S&P 500 선물이 CME 그룹 주가지수상품 중

가장 대중적이고 유동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S&P 500 을 유럽의 지수들과 비교할 때는 상관관계가 일반적으로 더 낮아지며 남미나 아시아의 지수들과 비교할 때에는 더욱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S&P 500 과 Euro STOXX 50 간의 상관관계는 0.865로 나온 한편 S&P 500 과 닛케이 225 와의 상관관계는 0.682로 낮아졌으며 S&P 500 과 Ibovespa 지수간에는 0.776로 나왔습니다.

S&P 500 지수와 세계 지수들과의 상관관계

(2007. 1. 5. - 2013. 8. 9.간의 주별 사례)

	조정전	환율 조정후
NASDAQ-100	0.926	0.926
DJIA	0.981	0.981
S&P 중형주	0.962	0.962
유로 스톡스 50	0.865	0.827
FTSE 100	0.882	0.848
니케이 225	0.682	0.609
CNX Nifty	0.552	0.623
KOSPI 200	0.614	0.656
Ibovespa	0.776	0.786
IPC	0.805	0.844

아마도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및 일본의 경제가 일반적으로 선진국 경제권으로 둑이는 반면에 인도, 한국, 브라질과 멕시코는 신흥국 경제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통해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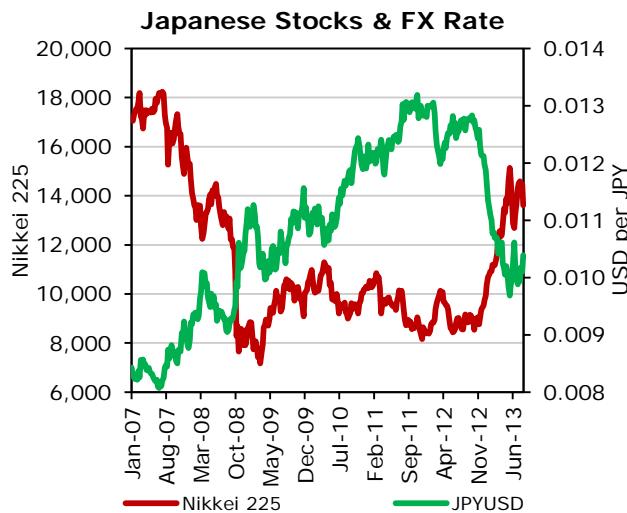
환율조정후 상관관계

미국 주식에의 투자와 유럽, 아시아 또는 남미의 주식에의 투자와의 관계를 따질 때는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주가지수 수치를 미달러화로 환산하여 공통의 화폐가치로 측정한 후 상관관계를 다시 계산하였습니다. 표 3 이 그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현물지수만을 사용해 산출한 상관관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과 닛케이 225 사이의 상관관계는 환율 조정전에는 0.682였던 반면에 조정 후에는 0.609로 낮아집니다.

¹ 상관관계는 2007년부터 2013년 8월 초까지의 현물한 지수 간 주간 변동을 통해 산정되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의 폐장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나며, 이 때문에 실제보다 상관관계가 낮게 산정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S&P 500 과 니케이 225 사이의 상관관계가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간의 환율을 조정한 후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가지수와 엔화가치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는 역사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일본경제를 이끌어 왔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엔화강세는 경제의 약세를 뜻하며 거꾸로 엔화약세는 경제의 강세를 의미합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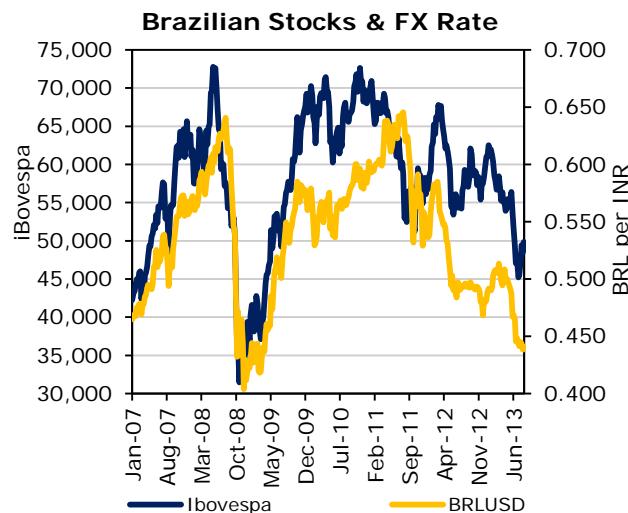


또 다른 요인은 일본엔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와중에서 "안전자산"인 통화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엔화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헤지펀드 등이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하여 공매도한 일본엔화를 외환시장에서 대규모로 엔캐리 청산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최근에는 아베신조 총리가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인 2%대로 끌어올려 경제성장을 실현하려는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소위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보아 왔습니다. 이 정책은 마이너스금리 환경을 만들어 냄으로써 나타나는 통화부양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아베노믹스는 나아가 일본엔화의 절하와 함께 주가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S&P500 과 Ibovespa 지수간의 환율조정 후의 상관관계는 0.786으로 산출되었으며 조정전의 수치인 0.776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브라질 주식은 브라질 레알화의 가치와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금융위기가 고조되던 때에 투자자들은 (역설적으로) 미달러화 자산을 "안전자산" 통화로서 매수하였습니다. 이는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었던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레알화와 같은 통화는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주가의 전반적인 하락과 밸맞추어 급락하였습니다. 브라질 레알화뿐만 아니라 브라질 주식시장도 2011년초에는 신흥시장 전반의 회복세에 따라 동반 상승을 보인 후 하락으로 전환하였습니다.³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미국과 외국간의 주가지수선물 스프레드는 환율변동을 참작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포지션은 주로 본국 거래소의 자국통화로 납부하는 개시증거금으로 보증됩니다. 또는 해당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을 다른 통화로 표시된 현금이나 증권으로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나라간의 주가지수 스프레드에 투자하고 그 전부 또는 최소한 거의 대부분을 미달러화나 다른 통화로

2 우리는 엔화 환율을 미화 1달러당 일본엔화로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엔화가 강세(약세)라는 것은 환율이 하락(상승)하는 것입니다. 은행간 외환시장에서는 일본엔화당 미달러화로 표시하는 것이 관행임을 주지하십시오. 우리는 표준적인 환율표기 관행에서 벗어나서 한 나라의 주식시장과 통화간의 상관관계의 유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우리는 인도 루피화의 환율을 미화 1달러당으로 표기합니다. 그러므로 인도 루피화는 환율이 하락(상승)할 때 강세(약세)입니다. 은행간 외환시장에서는 인도루피화당 미달러화로 호가하는 것이 관행임을 주지하십시오. 우리는 표준적인 환율표기 관행에서 벗어나서 한 나라의 주식시장과 통화간의 상관관계의 유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선택하여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원하는 경우 매일의 일일정산 손익 전액을 특정 통화로 쓸어담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율위험은 선제적으로 관리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비율과 성과

시장간스프레드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소위 말하는 "스프레드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스프레드비율은 스프레드를 취하는 양측의 포지션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기 위한 주가지수선물 계약의 비율을 지칭합니다.

이를 위하여 스프레드의 대상이 되는 두 주가지수선물계약의 금액을 가격 1 과 가격 2(반드시 동일한 통화로 표시)라고 한다면 다음 공식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text{Spread Ratio} = \text{Value}_1 \div \text{Value}_2$$

선물계약의 금액가치를 확정하기 위하여 선물지수가 아닌 현물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물가격에 반영된 현물 보유비용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E-mini S&P 500 선물은 2013. 8. 9 일 현재 명목가치가 \$84,571 (= \$50 x 1,691.42)로 산정되고 E-mini (\$5) DJIA 선물은 \$77,128 (= \$5 x 15,425.51)로 산정됩니다. 이는 E-mini S&P 500 선물 10 계약에 대하여 E-mini (\$5) DJIA 선물 11 계약으로 맞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begin{aligned} \text{Spread Ratio} &= \text{Value}_{S\&P 500} \div \text{Value}_{DJIA} \\ &= \$84,571 \div \$77,128 \\ &= 1.097 \text{ or ratio of } 10:11 \text{ S&P vs. DJIA contracts} \end{aligned}$$

예를 들어, E-mini S&P 500 선물의 가치는 \$84,571이고 CME 의 미달러화 Nikkei 225 선물의 가치는 \$68,076 (= \$5 x 13,615.19)입니다. 이 경우 E-mini S&P 500 선물 4 계약에 Nikkei 225 선물 5 계약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begin{aligned} \text{Spread Ratio} &= \text{Value}_{S\&P 500} \div \text{Value}_{Nikkei} \\ &= \$84,571 \div \$68,076 \\ &= 1.242 \text{ or ratio of } 4:5 \text{ S&P vs. Nikkei contracts} \end{aligned}$$

예를 들어, E-mini S&P 500 선물의 가치가 \$84,571 일 때 CME 의 Ibovespa 선물은 \$49,875 (= \$1 x 49,874.90)입니다.

이는 E-mini S&P 500 선물 3 계약에 E-mini (\$5) Ibovespa 선물 5 계약을 맞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begin{aligned} \text{Spread Ratio} &= \text{Value}_{S\&P 500} \div \text{Value}_{Ibovespa} \\ &= \$84,571 \div \$49,875 \\ &= 1.696 \text{ or ratio of } 3:5 \text{ S&P vs. Ibovespa contracts} \end{aligned}$$

이 예들은 E-mini S&P 500 선물을 이용한 스프레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E-mini S&P 500 선물을 사고 다른 선물계약을 파는 전략에 대하여 말할 때 "스프레드를 매수"한다고 표현합니다. "스프레드를 매도"한다는 표현은 E-mini S&P 500 선물을 매도하고 다른 선물계약을 매수하는 전략을 말할 때 씁니다.

"스프레드 매수" →	S&P 500 선물 매수 다른 선물 매도
"스프레드 매도" →	S&P 500 선물 매도 다른 선물 매수

스프레드투자는 보통 단순하게 산정한 포지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을 가집니다. 따라서 CME Clearing House 에서는 스프레드가 위와 같이 산정된 비율대로 실행된 경우에는 단순한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 소요액보다 10% 정도 감액한 증거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거금과 비율은 수시로 변하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증거금의 감액혜택은 CME 그룹의 상품간 스프레드에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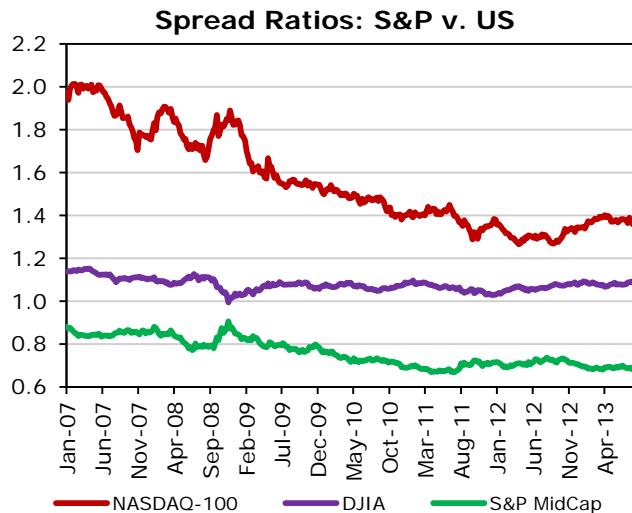
국내 지수스프레드비율

스프레드비율은 시장간스프레드의 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보여 줍니다. 비율이 동적이므로 거래에 앞서서 현재의 스프레드비율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동적이라고 하나 스프레드비율은 시장간 스프레드투자의 일반적인 성과지표로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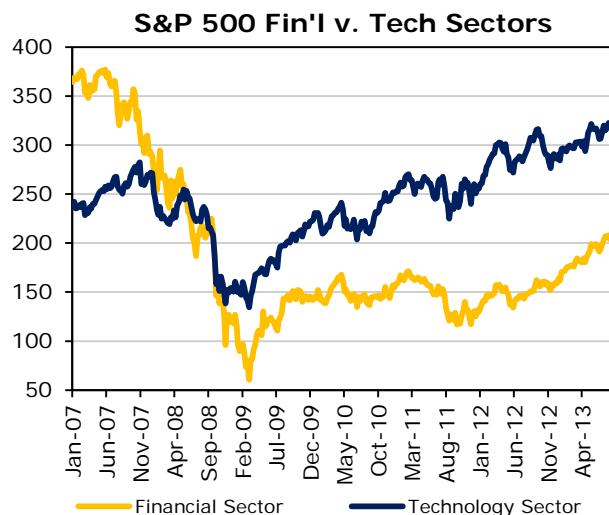
우리는 스프레드비율을 E-mini S&P 500 선물과 다른 선물계약간의 상대적 비율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율이 증가하면 곧 S&P 500 이 다른 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세임을 나타냅니다. 비율이 하락하면 S&P 500 의 상대적 약세를 나타냅니다.

2007 년부터 2013 년 8 월초까지에 걸쳐 S&P 500 은 전반적으로 NASDAQ-100 과 S&P 종형주지수보다는

약세였던 반면 DJIA 보다는 강세였습니다. 이같은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NASDAQ-100 지수는 기술주가 대부분이며 금융회사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와중에 기술주보다도 약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S&P 지수와 NASDAQ 지수간의 스프레드비율이 2012년 중반까지 상당히 하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금융업이 이전까지의 방향과는 반대로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서며 스프레드비율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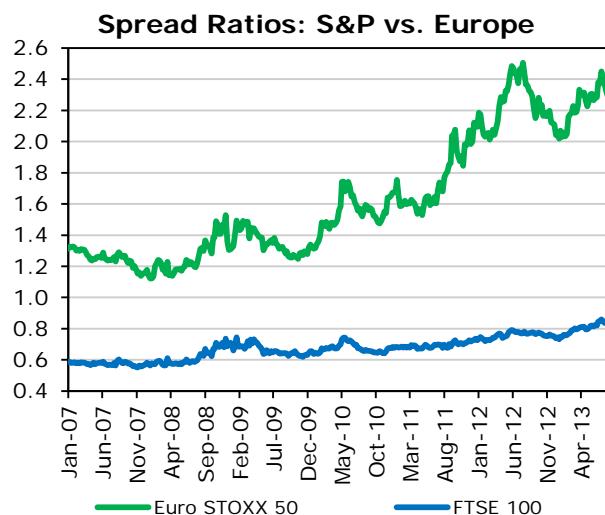


S&P 500과 S&P 중형주 400 지수간 스프레드는 종종 금리와 신용여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대기업은 보통 주식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중형주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중소 기업들은 부채를 통하여 스스로 자금을 융통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금융위기 후의 저금리 환경은 전반적으로 중소형 종목을 유리하게 하였기 때문에 스프레드비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스프레드비율은 또한 신용여건에도 민감합니다. 2008년 말과 2009년 초, 국채 대비 민간채무증권의 추가비용을 나타내는 신용스프레드가 급등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용스프레드의 급등은 스프레드비율의 일시 급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해외지수 스프레드비율

S&P 500 지수가 나타내는 미국 주식은 금융위기 후의 환경에서 유럽주식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는 유럽이 소위 유럽국가채무위기로 시련을 겪었던 사실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S&P 500과 Euro STOXX 50 지수를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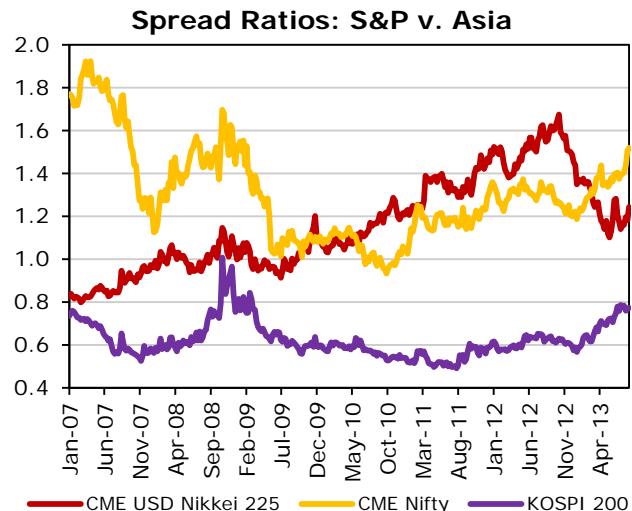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의 주식은 CNX Nifty, Kospi 200, Ibovespa 및 IPC 등 신흥국 주식시장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은 미국의 경제회복 기미와 부분적으로는 신흥시장 경제의 약화에 힘입어 지난 한 해 남짓 동안 전반적으로 반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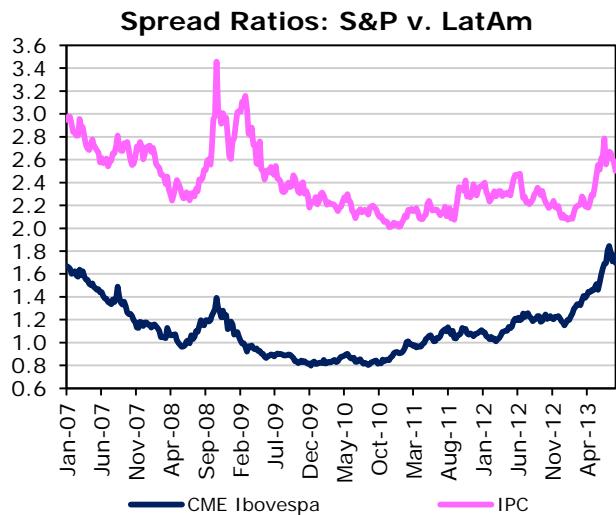
S&P 500과 Nikkei 225 간의 스프레드 비율에서, 스프레드 비율이 상승한 것을 볼 때 미국 주식이 서브프라임 위기 발생 직후에 약간 강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프레드비율은 일본 아베총리의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및 경제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부흥 시도에 격렬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이 지난 한 해

동안의 강세였음에도 일본 주식은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강세이며 이는 스프레드비율의 하락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프레드비율의 장기추세를 GDP 성장으로 측정한 여러 나라 주식시장의 경제적 성과와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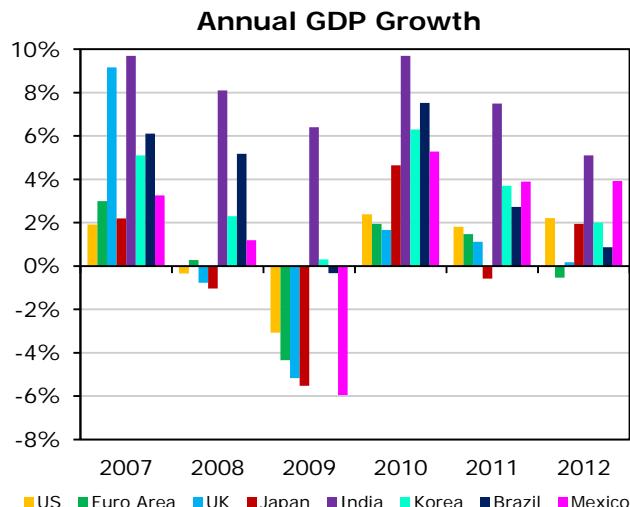
인도, 한국,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시장 경제는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에 비하여 지난 수년간 더 전반적인 호조를 기록하여 왔습니다. 이 점은 여러 스프레드비율의 겸증을 통해 더 명확히 나타납니다

결론

오늘날 전자상으로 서로 연결된 세계경제에서는 투자자들은 자주 산업부문간에 심지어는 국가경제간에도 투자 교체를

실행합니다. 주가지수선물 사이의 시장간스프레드는 이러한 교체전략을 매우 간결하고 쉽게 만들어 줍니다.

국내의 주가지수선물간 스프레드 면에서 투자자들은 지수가 대변하는 특정 시장부문의 실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NASDAQ-100 스프레드는 S&P 500이 금융주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NASDAQ-100은 기술주가 지배적이라는 특징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간 스프레드, 예를 들어 S&P 500과 Euro STOXX 50 간의 스프레드는 국제간의 기초적이고 중요한 경제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간 스프레드는 환율효과에 의하여도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CME 그룹의 주가지수선물 상품에 관하여 더 알아보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표 1 : 주가지수선물 비교

(2013. 8. 9. 현재)

선물계약	거래소	계약승수	지수	통화	통화 가치	계약금액(미달러)
E-mini S&P 500	CME 그룹	\$50	1,691.42	미달러	1	\$84,571
E-mini Nasdaq-100	CME 그룹	\$20	3,118.57	미달러	1	\$62,371
E-mini (\$5) DJIA	CME 그룹	\$5	15,425.51	미달러	1	\$77,128
E-mini S&P 중형주 400	CME 그룹	\$100	1,237.70	미달러	1	\$123,770
Euro STOXX 50	EUREX	€10	2,825.62	유로	1.3342	\$37,699
FTSE 100	NYSE Euronext	£10	6,583.4	파운드	1.5498	\$102,029
니케이 225	동경거래소	¥1,000	13,615.19	엔	0.010393	\$141,503
니케이 225	CME 그룹	¥500	13,615.19	엔	0.010393	\$70,751
니케이 225	CME 그룹	\$5	13,615.19	미달러	1	\$68,076
CNX Nifty	인도 NSE	50 인도루피	5,565.65	인도루피	0.016482	\$4,587
E-mini CNX Nifty	CME 그룹	\$10	5,565.65	미달러	1	\$55,657
E-micro CNX Nifty	CME 그룹	\$2	5,565.65	미달러	1	\$11,131
KOSPI 200	KRX	50 만원	1,880.71	원	0.0008995	\$109,348
Ibovespa	BM&F	1 브라질레알	49,874.90	브라질레알	0.4404	\$21,965
Ibovespa	CME 그룹	\$1	49,874.90	미달러	1	\$49,875
IPC	멕시코파생상품거래소	MXN 10	42,648.74	MXN	0.07926	\$33,803

표 2 : 현물지수간 상관관계
(2007. 1. 5.부터 2013. 8. 9.까지 주별 사례)

	S&P 500	Nasdaq-100	DJIA	증형주 400	유로스톡스 50	FTSE-100	니케이 225	CNX Nifty	KOSPI 200	Ibovespa	IPC
S&P 500	-										
Nasdaq-100	0.926	-									
DJIA	0.981	0.895	-								
증형주 400	0.962	0.915	0.922	-							
유로스톡스 50	0.865	0.791	0.854	0.835	-						
FTSE-100	0.882	0.809	0.866	0.866	0.916	-					
니케이 225	0.682	0.651	0.674	0.674	0.683	0.695	-				
CNX Nifty	0.552	0.550	0.548	0.554	0.590	0.585	0.557	-			
KOSPI 200	0.614	0.627	0.595	0.652	0.638	0.640	0.682	0.629	-		
Ibovespa	0.776	0.734	0.749	0.790	0.752	0.793	0.607	0.609	0.699	-	
IPC	0.805	0.739	0.786	0.811	0.729	0.758	0.606	0.548	0.659	0.769	-

표 3 : 미달러화 환산 현물지수간 상관관계

(2007. 1. 5.부터 2013. 8. 9.까지 주별 사례)

	S&P 500	Nasdaq-100	DJIA	증형주 400	유로스톡스 50	FTSE-100	니케이 225	CNX Nifty	KOSPI 200	Ibovespa	IPC
S&P 500	-										
Nasdaq-100	0.926	-									
DJIA	0.981	0.895	-								
증형주 400	0.962	0.915	0.922	-							
유로스톡스 50	0.827	0.757	0.810	0.803	-						
FTSE-100	0.848	0.783	0.829	0.835	0.898	-					
니케이 225	0.609	0.563	0.593	0.594	0.636	0.652	-				
CNX Nifty	0.559	0.551	0.552	0.562	0.626	0.615	0.503	-			
KOSPI 200	0.656	0.658	0.631	0.688	0.683	0.711	0.656	0.680	-		
Ibovespa	0.786	0.736	0.756	0.795	0.781	0.834	0.571	0.631	0.737	-	
IPC	0.844	0.768	0.820	0.841	0.789	0.798	0.585	0.596	0.715	0.817	-

니케이 225 지수 선물은 CME 규칙 및 규정과 함께 상장되어 그 적용을 받습니다.

저작권 2013 CME 그룹. 모든 권리 보유.

선물거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선물은 차입금을 사용하는 투자이며 계약금액의 일정 퍼센트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에 예치한 증거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자는 손해를 입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자금만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 거래마다 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에 이 자금의 일부만을 한 거래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Globe 로고, 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 및 Globex®는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BOT®와 Chicago Board of Trade®는 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 의 상표입니다. NYMEX,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및 ClearPort 는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OMEX 는 Commodity Exchange, Inc.의 상표입니다. CME Group 은 CME Group Inc.의 상표입니다. NIKKEI®는 Nihon Keizai Shimbun 의 상표이며 라이선스 하에 사용 중입니다. 그 외의 모든 상표는 각각의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본 문서 상의 정보는 CME 그룹이 일반적인 용도로만 편집한 것입니다. CME 그룹은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ME 그룹은 본 문서 상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사용한 모든 예제들은 오직 설명을 돋기 위해 가정한 것으로써 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실제 시장에서 일어난 사실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중에서 규정 및 사양에 대해 언급한 모든 내용은 CME, CBOT 및 NYMEX 의 공식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공식 규정은 본문 내용에 우선합니다. 계약 사양과 관련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현행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